

## “전라선 무늬만 고속철, 30분 이상 단축해야”

전남도의회 “용산~여수간 단축 노선 건설” 촉구

전남도의회가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의 단축 노선화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16일 본의회장에서 성명을 통해 “용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44분에서 2시간34분으로 고작 10분 단축된 계획이어서 사업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히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나,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미처 개선하지 못한 채 운행해왔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우·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관광객이 크게 늘고, 광양만권 산단도 연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속 350km급 고속철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호 기자

## “4월은 그대를 그리는 계절”...세월호 추모 물결

광주서도 지역 예술인·시민 모여 참사 추모

“4월은 그대를 그리는 계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 도심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렁였다.  
 예술인들이 중심이 된 추모기억식으로 광장이 노란 빛으로 물드는가 하면 시민분향소를 찾는 광주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예술인행동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예술인행동장을 열었다.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미술가 등 개인 또는 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술인들은 16개 추모 부스를 운영, 공연과 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 참사로부터 비롯된 먹먹한 감정을 토로했다.  
 악기를 쟁겨온 음악가들은 부스를 돌며 추모 열기를 공연으로 승화시켰다. ‘기억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 우리들이 모여 희망이 된다’는 밝은 분위기의 노랫말에 흠을 주거나 때로 답가로 화답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미술 작가들은 광장에 시민들이 완성할 수 있는 추모 작품들을 설치했다. 세월호 참사를 뜻하는 고래 조형물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나

비 조형물을 끼우는 작품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광장 바닥에 펼쳐진 길게 그림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글씨가 적혔다.  
 지난 12일 설치된 시민분향소에는 이날까지 광주시민 수 백 여명이 다녀가며 현화·분향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인쇄된 대형 길게 앞에서 조심스럽게 현화하고 묵념했다.  
 제단 위에 놓인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액자를 바라본 한 시민은 먹먹한 감정을 해소하듯 한숨을 내쉬어 쉬었다.  
 시민들은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10년에 이르고 있다며 미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지(25·여)씨는 “참사 당시 숨진 언니·오빠들의 나이가 2014년 4월 16일에 멈춘 것처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도 10년 전에 멈춰선 것 같다”며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주 기자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웨이브사피니아 4천 본 대형 꽃탑 조성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손님이 준비해 한 창이다. 함평군은 엑스포공원 주제관 앞지름 10m, 높이 14m 규모의 품나무, 희망나무 조형물에 웨이브사피니아 화분 4천 본을 투입, 꽃탑 조성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손님이 준비해 한 창이다. 함평군은 엑스포공원 주제관 앞지름 10m, 높이 14m 규모의 품나무, 희망나무 조형물에 웨이브사피니아 화분 4천 본을 투입, 꽃탑 조성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전남대 등 20곳, 글로벌대 예비지정

‘5년간 1천억 지원’...사립 약진, 전문대·초광역 진입  
 사립 대거 증가...신설 연합 유형 6개 중 5개가 사립

고강도 구조개혁을 약속한 지방대를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주는 2년차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20곳이 추려졌다.  
 지난해보다 사립대가 대거 선정돼 약진했고, 전문대로만 구성된 조합도 처음 1단계를 넘었다.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대학 간의 초광역권 연합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단독·공동으로 신청한 65곳 중 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수로는 신청 109개교 중 33개교가 들었다.

‘글로벌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의 과거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 단일 대학 지원액으로 최대 규모다.  
 글로벌대학엔 과학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 받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의 유력 지방대 입장에서 상황을 겪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선 기존 단일 대학 ‘단독’ 유형과 복수 대학의 ‘통·폐합

전제로 한 ‘통합’ 유형 외에 ‘연합’ 유형이 신설됐다. 학사 조치는 그대로 두고 대학을 운영하는 본부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단독형이 11곳으로,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전남대 ▲한남대 ▲한동대다.  
 신설된 연합형은 6곳이 본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연합이다.  
 통합 유형은 ▲충남대+한밭대 ▲원광대+원광보건대, 그리고 경남 지역의 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합천대 3개교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 등과 연합을 구성하는 복합 유형까지 포함해 3곳이다.  
 특히 연합 유형은 6곳 중 5곳이 사립대로만 구성됐다. 사립 영남대와 연합한 금오공대가 유일한 국립대다. 연합 유형 신설이 사립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대들은 학교법인 체제라 통합이 국립대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사립 일반-전문대간 통합도 지난해 평가에선 한 곳도 예비지정에 들지 못했으나 올해는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점도 특징이다.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가 24개교로 이중 일반대가 16개교, 전문대가 8개교다. 국립대는 7개교며 공립 전문대도 2개교 포함됐다.  
 전문대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김도기 기자

전국 최대 규모 2000평 스포츠센터 상무지구

## 파라드시티

## QED골프

**Fitness** ☑️ 광주유일 실내 100m트랙  
☑️ 시 디렉트

**1:1PT** ☑️ 개인PT룸  
☑️ 스트레칭존

**Tennis** ☑️ 스크린 연습장  
☑️ 실내 정식 코트  
☑️ 실외 코트 가능

**Golf** ☑️ 1000평 규모  
☑️ 31타석

평일 06시~24시 / 주말 08시~22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음 상가 2,3층 파라드시티(광주CGV 건너편)  
 문의 062 374 0088

10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 2개 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